

# “축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온힘 쏟을 터”

## 대통령 직속 농발위원으로 위촉된 전동용회장

- 홍 보 부 -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축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응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본회 전동용회장의 소감이다.

총 30명의 위원중 축산분야에서는 송찬원 축협중앙회장과 단 둘만이 위원으로 위촉된 전회장은 “UR타결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목전에 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솔직히 표현했다.

“농발위는 정부에서 마련한 농어촌대책을 심의,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기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농어촌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자문기구”라고 성격을 규정한 전회장은, “UR타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수립과 연간 1조5천억원씩 건게 될 농어촌특별세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 지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농발위는 행정부 등과 같이 여러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대책을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도 농발위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기 때문에 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란 얘기다.

농발위는 월 1~2회의 전체회의와 주 1회 이상의 소위원회를 열어 7월말까지 농어촌발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농어업경쟁력강화소위, 농어촌산업진흥소위, 농어민후생복지소위 등 3개로 구성되었는데, 전회장은 농어업경쟁력강화소위에 소속돼 연일, 밤낮없이 제도개선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전회장은 “축산업계 대표로 농발위에 참여한 만큼 10년 숙원사항인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꼭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단순히

66

축산업계의 대표로  
농발위에 참여한 만큼  
후세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축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계획입니다.

99



전 동 용 농발위원

축산업계의 문제로만 인식해선 안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공해를 방지하며,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국가환경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자금은 최소한 선진외국과 같이 50% 이상 국고에서 보조해 줘야 하며, 나머지 소요액도 20~30년의 장기로, 1~3%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선진국의 리보금리가 3%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축산지원자금 금리 5~8%는 너무 높다며 금리를 더 내리고, 융자기간도 길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민자당에 설치된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내 12개 소위중 UR대책소위에 소속돼 있기도 한 전회장은 민자당내에서도 농발위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농발위에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요로를 통해 청와대에도 직접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회장은 농발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축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로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회장은 농어촌발전 대책마련을 위해 이번달부터 농촌 현장을 돌며 농어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열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끝으로 전회장은 “축산업계의 대표로 농발위에 참여하고, 또 축산농가들의 기대가 큰만큼 후세에 한 점 부끄러움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축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필자**